경주 동천동 일명사지 석조물에 대한 고찰 (慶州 東川洞 逸名寺址 石造物에 대한 考察)

檀國大學校 博物

館長 鄭 永 鎬

Ι

경주시내(慶州市內)에서 북천(北川)다리를 건너 포항행(浦項行) 가도(街道)로 가다가 오른쪽에 사면석불(四面石佛) 방면(方面)으로 가는 관광도로(觀光道路)가 있음은 누구나 다잘 알고 있다.

이 사면석불행(四面石佛行) 도로(道路)주변 일대가 동천동(東川洞)인데 그 중간쯤의 왼쪽 100m허에 황성초등학교(隍城初等學校)가 자리잡고 있어 이 곳의 목표기준물(目標基準物)은 역시 이 초등학교(初等學校)로 잡아야 되겠다. 문제의 석조물(石造物)은 도로(道路)에서 초등학교(初等學校)로 들어가는 길 오른쪽 논가운데 있다.(圖 1, 2 참조)

석물(石物)의 존재(存在)는 국립경주박물관(國立慶州博物館)이나 경주사적관리사무소(慶州史蹟管理事務所)에서 이야기하고 있었고 필자(筆者)도 오래전부터 이곳을 지나면서 멀리바라보곤 하였으나 돌무더기 속에 묻혀 있어 일찍이 조사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근년에 이돌 무덕이가 제거되고 주변이 정리됨으로써 석물(石物)의 형체가 들어났다는데 금년(今年)년초(年初)에 경주(慶州)를 방문(訪問)했을 때 박물관(博物館)의 이(李)중성씨(氏)로부터최근 석물(石物)의 상황을 이야기 듣고 현지(現地)를 찾아 석물(石物)을 확인, 조사를 하는한편 주변 일대로 살펴 보았다. 이후 문화재연구소장(文化財研究所長) 김정기박사(金正基博士)와 동행(同行),이 석조물(石造物)을 재조사(再調査)하였고 현지(現地)에서 많은 의견(意見)교환도 있었다.



圖 1. 동천사지(東川寺址) 방형석조물(方形石造物)(동북방(東北方)에서)



圖 2. 東川里寺址의 方形石造物(南西方에서)

圖 2. 동천사지(東川寺址)의 방형석조물(方形石造物)(남서방(南西方)에서)

한편 이 석물(石物)에 대하여 대강이나마 기록으로 남긴 것은 일인학자(日人學者)동도해 치람박사저서(藤島亥治郎博士著書)인 「조선건축사론(朝鮮建築史論)」에 약간 보일 뿐이다. 즉 「조선건축사론(朝鮮建築史論) 기이(其二)」에서 제일편(第一篇) 신라왕경건축사론(新羅王京建築史論)을 논(論)할 때 제십장(第十章) 왕경급기부근불사(王京及其附近佛寺)를 말하면서 제오절(第五節) 제이항(第二項)에서 약간 언급(言及)하고 있으니 그 전문(全文)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필자(筆者) 역(譯))

제이항 천북면소재불사급사지(第二項 川北面所在佛寺及寺址)

1. 백률사(柏栗寺)

용강리(龍江里)의 금강산중복(金剛山中腹)에 위치하고 있다, 법흥왕(法興王) 25年 초창(初창)(이하(以下) 생략(省略))

2. 굴불사지(掘佛寺址)

유명(有名)한 사면석불(四面石佛)이 있다.(이하(以下) 생략(省略))

3. 용강리사지(龍江里寺址)

굴불사지하산(掘佛寺址下山) 서방약(西方約) 1정(町)에 천부(天部)의 조각(彫刻)이 있는 폐탑(廢塔)이 있다.

4. 용장리사지(龍江里寺址)

다시 서(西)쪽으로 발사이의 동리(洞里)길 옆에 파손(破損)된 석불좌상(石佛坐像) 일구 (一軀)가 있다. 諸鹿씨(氏)는 이곳을 봉덕사지(奉德寺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이하(以下) 각항(各項) 생략(省略))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도 이 석물(石物)과 관계된 내용(內容)은 3, 4의 용강리사지(龍江里寺址) 유물(遺物)을 말한것 뿐이으로 이밖에는 백률사(柏栗寺)나 굴불사지(掘佛寺址), 동천리사지(東川里寺址) 등 이 석물(石物)과는 관계없는 내용(內容)이다.

騰度박사(博士)의 이 저서(著書)가 1930年 3月의 것이었는데 그때는 경주중심가(慶州中心街)를 부내면(府內面)이라 일컬었고 지금의 동천동(東川洞) 일대는 천북면(川北面)에 속해 있었으며 용강리(龍江里), 동천리(東川里) 등의 행정구역(行政區域)이었으나 지금은 이일대가 모두 경주시(慶州市)로 편입되어 동천동(東川洞)으로 합쳐지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당시 騰度박사(博士)가 지칭(指稱)한 이곳 일대의 유적(遺蹟) 유물(遺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금강산(金剛山) 중턱에 백률사(柏栗寺)가 있고 그 밑의 굴불사지(掘佛寺址)에 사면석불(四面石佛)이 있으며 여기서 서(西)쪽으로 약 1정(町)되는 지점(地點)에 천부상(天部像)이 조각(彫刻)된 폐탑(廢塔)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수정(數町)되는 곳에 폐탑(廢塔)이 있고 동천리(東川里) 부락(部落) 남방(南方) 에는 봉덕사지(奉德寺址)로 생각되는곳(일인(日人) 諸鹿씨(氏)의 추측)에 석불좌상(石佛坐像) 일구(一軀)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과거의 내용(內容)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유적(遺蹟) 유물(遺物)의 상황을 살펴 보면

금강산(金剛山) 중턱에 백률사(柏栗寺)가 있고 그 밑으로 굴불사지(掘佛寺址) 사면석불 (四面石佛)이 보존(保存)되어 있으니 이러한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그리고 여기서 서(西)쪽으로 포항행(浦項行) 산업도로(産業道路)를 건너 불과 100m내외(內外) 되는 지점 오른쪽 논가운데 큼직한 옥개석(屋蓋石) 2석(石)이 반(半)쯤 묻쳐 있으며 여기서 다시 서 (西)쪽으로 약 300m되는 곳에 수제(首題)의 석물(石物)이 있으니 이러한 현황(現況)은 藤 島박사(博士)의 말과는 다르다. 각(各) 유적(遺蹟) 유물간(遺物間)의 거리가 정확하지 않음 은 당시 목측(目測)에 의하여 「약(約)」이라 표시하였으므로 이해(理解)되는 일이나 유물 (遺物)의 형태(形態)만은 정확하게 말했어야 될 일인데 그렇지 못했다. 그가 기록(記錄)한 사면석불(四面石佛) 서(西)쪽으로 약 1정(町)되는 지점(地點)의 천부상(天部像)이 조각(彫 刻)된 폐탑(廢塔)이라는 것은 일반형석탑(一般型石塔)의 옥개석(屋蓋石) 2석(石)뿐으로(도 (圖) 3 참조) 천부상(天部像) 등의 조각석재(彫刻石材)가 남아 있지 않으며 여기서 서(西) 쪽 약 300m되는 곳에 또한 폐탑(廢塔)이 있어 여기에는 신석(身石) 사방(四方)에 좌상(坐 像)이 조각(彫刻)되어 있으므로 그가 표현(表現)한바 「폐탑(廢塔)이 있다」뿐으로는 맞지 않는 상황이다. 여하튼 그의 기록이 현재의 유적(遺蹟) 유물(遺物)의 상황과 맞지 않아 정 확하지 못한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유적지(遺蹟地)의 존재(存在)를 기록으로 남겨 놓았으므 로 여기에 잠간 그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그리고 그의 기록에서 동천리(東川里)부락(部落) 남방(南方)에 파손(破損)된 석불좌상(石佛坐像) 1구(驅)가 있어 일인(日人) 諸鹿씨(氏)가 봉덕사지(奉德寺址)로 추정(推定)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본론(本論)과 관계 없으므로 논외 (論外)로 하겠다.



圖 3. 동방(東方)의 석탑재(石塔材)

그가 기록한 내용(內容)에서 주목되는 것은 역시 3, 4항(項)의 용강리사지(龍江里寺址) 인데 이곳이 바로 현재 황성초등학교(隍城初等學校)를 중심한 일대이며 그가 말한 용강리사지(龍江里寺址)의 양폐탑(兩廢塔)이란 곧 상기(上記)한 석탑(石塔) 옥개(屋蓋) 2석(石)과 신석(身石) 사방(四方)에 좌상(坐像) 조각(彫刻)이 있는 탑재(塔材)를 지적하고 있음이 분명한 것으로 생각되는 바 그의 3, 4항(項) 기록이 서로 바뀌어지면 어느 정도 현재의 유물(遺物)상황과 맞는 설명이 될지도 모르겠다.

옥개석(屋蓋石) 2석(石)은 공(共)히 옆으로 세워져 있어서 반(半)쯤이 땅속에 묻쳐 있다 하여도 형태(形態) 파악에는 지장이 없다. 전형적(典型的)인 신라시대(新羅時代) 일반형석탑(一般型石塔)으로 옥개(屋蓋)받침이 4단(段)이고 정면(頂面)에는 각형(角形)의 2단(段) 괴임을 각출(刻出)하여 그 윗충의 옥신석(屋身石)을 받도록 되어 있다. 낙수면(落水面)이 평박(平薄)하고 추녀는 직선(直線)을 이루었으며 전각(轉角)의 반전(返轉)도 뚜렷하여 경쾌(輕快)한 탑신부(塔身部)를 이루었었으리라고 짐작되는데 이 밖에 다른 부재(部材)가 없어 유감이다. 석탑(石塔)의 규모는 큰 옥개석(屋蓋石)의 일변장(一邊長)이 2m내외(內外)로 추측됨에서 중형(中型)이상이었으리라고 짐작되며 이렇게 큼직한 옥개석(屋蓋石)이 논 가운데 묻쳐있는 상태로 보아 현재의 위치가 원위치(原位置)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곳에는 이 석탑(石塔)을 중심하여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에 사원(寺院)이 개창(開창)되었던 것으로 짐작 되는바 주변의 밭이나 논두덩에서는 현재에도 많은 와편(瓦片)이 눈에 띄며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청자편(靑瓷片)도 간혹 볼 수 있다.



圖 4. 묻혀있는 장대석(長大石)

옥개석(屋蓋石)만이 2石이 남아있는 이곳 사지(寺址)에서 西쪽으로는 별다른 고저(高低)의 차(差)가 없이 평탄한 들판이며 여기의 중간쯤 약 300m되는 곳에 필자(筆者)가 소개할려고 하는 석조물(石造物)이 자리잡고 있다.

는 두덩 가까이에 놓여있는 이 석물(石物)은 서두(序頭)에서 말했듯이 오랜동안 돌 무더기 속에 묻쳐 있었던 탓인지 아직도 주변에는 작은 돌들이 흩어져 있고 전체적으로 하단부 (下端部)가 논바닥에 묻혀 있어서 하단부(下端部)의 형태와 그 밑의 구조는 알 수가 없다.

눈 두덩에는 경작시(耕作時) 주어 모아 놓은 대소와편(大小瓦片)이 산란(散亂)한데 이밖에 논두덩에 묻혀 있는 장대석(長大石) 2매석(枚石)(도(圖) 4참조)이 있어 주목(注目)되었다. 장대석(長大石)은 화강암(花崗巖)으로서 상면(上面)과 측면(側面)을 치석(治石)한 것으로 보면 어떠한 석조물(石造物)의 지대석(地臺石) 같기도 한 생각이 든다. 묻혀 있으므로 정확한 규격(規格)은 알 수 없으나 현재의 노출 부분으로 보아 두께 20cm, 일변장(一邊長) 120cm이상의 장대석(長大石)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 장대석(長大石)과 석조물(石造物)의 사이가 불과 2.5m인데 혹시 이 석조물(石造物)에 속한 지대석(地臺石)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견(一見)하여 탑재(塔材)라 할 수 있는 석물(石物)과 지대석(地臺石), 그리고 주변에는 많은 와편(瓦片)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 일대가 사지(寺址)로서 여기를 앞서 말한 옥개석(屋蓋石)만이 남아 있는 동(東)쪽의 사지(寺址)와 구별(區別)되는 또하나의 사지(寺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동(東)쪽으로부터의 사찰(寺刹)을 살펴 보면 백률사(柏栗寺) 밑에 굴불사지(掘佛寺址)가 있고 서(西)쪽으로 옥개(屋蓋) 2석(石)이 남아 있는 폐사지(廢寺址) 그리고 이곳 황성초등학교(隍城初等學校) 인구(人口)의 사지(寺址) 등 하여 동서(東西) 일직선상(一直線上)에 멀지 않은 간격을 두고 경영(經營)되었었음을 현존(現存) 제유물(諸遺物)로써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주시내(慶州市內) 한 복판에서도 볼 수 있는 바이니 예(例)컨대 안압지(雁鴨地)의 북(北)편에 천주사지(天柱寺址)가 있고 동(東)편에 일명사지(逸名寺址)가 있으며 그 동(東)편과 북(北)편으로 황룡사지(皇龍寺址)와 분황사(芬皇寺)가 불과 얼마되지 않는 사이를 두고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홍륜사지(興輪寺址)와지(地)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 불교성시(佛敎盛時)였던 당시 신라(新羅)의 평지가람(平地伽藍)의 성격을 이러한 현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문제(問題)의 석물(石物)은 옥개(屋蓋)와 신석(身石)이 동일석(同一石)으로 조성(造成)되었고 평면(平面)은 방형(方形)이다. 그러므로 우선은 탑재(塔材)라 말하고 있으며 藤島박사(博士)도 폐탑재(廢塔材)로 기록하고 있는데 탑재(塔材)라고 할때 과연 어떠한 형식(形式)의 석탑재(石塔材)인지 의문되는 바 이 문제는 이 석물(石物)의 각부(各部)를 검토한 뒤에생각해 보는 것이 순서상 좋을것 같다.

탑재(塔材)의 형태는 각면(各面) 좌우단(羽緞)에 우주(隅柱)를 모각(模刻)하고 중심부에는 각기 두신광(頭身光)을 구비(具備)한 좌상(坐像) 일좌(一座)씩을 조각(彫刻)하여서 사방불(四方佛)을 배치(配置)하고 있음을 곧 알 수 있다. 옥개(屋蓋)는 신석(身石) 상단(上端)에 연속하여 조성(造成)하였는데 일반형석탑(一般型石塔)의 옥개석(屋蓋石)에서 볼 수 있는하면(下面)의 충단형(層段形) 옥개(屋蓋)받침은 없다. 약간의 경사가 있는듯 하나 거의 직선으로 평평하며 아무런 조각(彫刻)도 없다. 옥개(屋蓋)의 추녀는 직선형(直線形)이고 낙수면(落水面)에는 전면(全面)에 큼직한 복판(伏瓣)의 연화문(蓮華紋)이 조식(彫飾)되었는데이 연판(蓮瓣)때문인지 사우전각(四隅轉角)의 표현이 예리하지 못하며 각면(各面)의 낙수면(落水面) 주록변(周綠邊)도 판단(瓣端)으로 꽉 차 있어 여유가 전혀 없다. 옥개(屋蓋) 정면(頂面)에는 일단(一段)의 각형(角形) 괴임대(臺)를 마련하였는데 그 상면(上面)이 평평(平平)하고 넓직한 것으로 보아 또하나의 옥신석(屋身石)이 놓여도 족(足)할것 같다.

이상이 이 탑재(塔材)의 전체적인 관찰 내용인데 좀더 세부적(細部的)으로 검토해 보면 주목(注目)되는 여러가지의 조각(彫刻)과 형식(形式) 수법(手法)을 찾을 수 있다,

즉 신석(身石)의 사방불(四方佛)에 있어서도 좌상(坐像) 자체부터 각이(各異)할 뿐만이아니라 광배(光背)의 형태, 시문(施紋)까지도 서로 다른점이 있어 다른 일반형탑(一般型塔)의 사방불(四方佛)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같은 형식(形式)의 광배(光背)를 취(取)하고 있는 형태와는 전혀 달라 주의(注意)를 끌게 한다.

동(東)쪽의 좌상(坐像부터 살펴 보면(圖 5 참조) 신석(身石)의 측면(側面)을 전체적으로 내곡(內曲)되게 치석(治石)하고 좌상(坐像)을 양각(陽刻)하였기 때문에 릴리프가 심하여 각부(各部)의 선(線)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굵직한 일조선대(一條線帶)로 두(頭)신광구획

(身光區劃)없이 큼직한 원호(圓弧)를 그리면서 거신광(擧身光)을 마련하고 그 주연(周緣)에 또한 굵직한 화염문(火焰紋)을 조식(彫飾)하였는데, 화염문(火焰紋)들은 좌우우주(左右隅柱)와 옥개하단(屋蓋下端)까지 만조(滿彫)되어 한층 화사(華奢)하게 보인다. 좌상(坐像)은 두부(頭部)가 크게 파손(破損)되어서 보발(寶髮)인지 나발(螺髮)인지 소발(素髮)인지를 알수 없다. 그러나 보관(寶冠)을 쓰지 않은 점과 파손(破損)된 두상(頭像) 언저리의 상태로보아 여래상(如來像)으로 추측된다.



圖 5. 東面의 如來坐像

圖 5. 동면(東面)의 여래좌상(如來坐像)



圖 6. 남면(南面)의 여래좌상(如來坐像)



圖 7. 서면(西面)의 여래좌상(如來坐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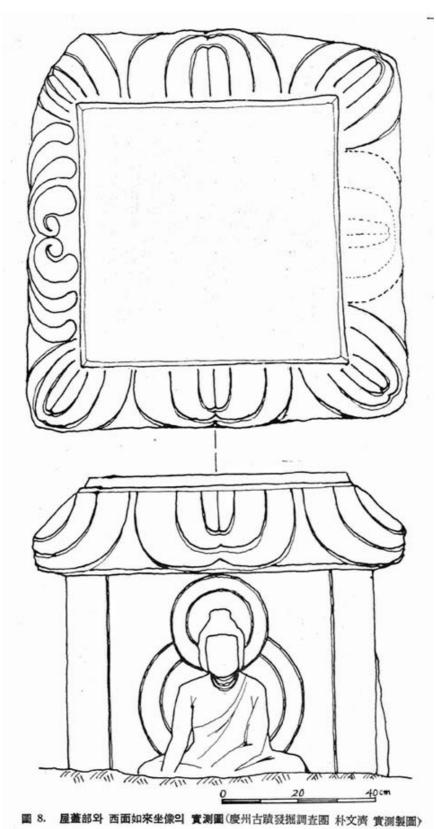


圖 8. 옥개부(屋蓋部)와 서면여래좌상(西面如來坐像)의 실측도(實測圖)(경주고적발굴조사단

(慶州古蹟發掘調査團) 박문제(朴文濟) 실측제도(實測製圖))

상호(相好)가 원만(圓滿)하고 양안(兩眼)과 비부(鼻部), 구순(口脣) 등이 정제(整齊)되었다. 그리고 양이(兩耳)가 양쪽 어깨 위까지 길게 느리워지고 목에는 삼도(三道)가 돌려져서 위엄(威嚴)이 있어 보인다.

법의(法衣)는 통견(通肩)이며 태조(太彫)의 의대(衣帶)밑으로 세선(細線)으로 표시된 의문(衣紋)이 양완(兩腕)과 흉전(胸前)을 덮고 있다.

수인(手印)은 우수(右手)를 어깨쪽으로 들어 외장(外掌)하였는데 좌수(左手)는 팔굽 이하 (以下)가 묻혀 있어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우수(右手)의 수인(手印)을 보고 좌완(左腕)이 복부(腹部)쪽으로 굽은 점으로 보아 제전(臍前)에서 상장(上掌)하여 받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바 만약에 묻혀 있는 좌수(左手)에 약합(藥盒)을 들고 있다면이 좌상(坐像)의 존명(費名)은 약사여래(藥師如來)일 것이다.

다음으로 남(南)쪽 면(面)의 좌상(坐像)을 살펴보면 (圖 6. 참조) 여기의 광배(光背)는 동면(東面)과 전혀 다른 점을 볼 수 있다.

즉 이조선(二條線)으로 두신광(頭身光)을 표시하면서 거신광(擧身光)을 이루었고 그 주연 (周緣)도 또한 내면(內面) 이조선(二條線)을 따라 두신광(頭身光)을 표시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여기의 광배(光背)는 일종의 문양대(紋樣帶)로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다. 그리하여이 광배(光背)는 중심부(中心部)를 향(向)하여 좌우(左右)와 상부(上部)가 내곡(內曲)된 형태를 이루고 그 안에 좌상(坐像)을 조각(彫刻)하였으므로 역시 입체적(立體的)인 조각(彫刻)이며 각부(各部)의 선(線)이 강하게 처리되고 있다. 광배(光背)의 시문(施紋)은 화염문(火焰紋)이기는 하나 태조(太彫)이어서 동면(東面)만티 화사(華奢)하지는 않은 것 같다. 측면(側面)에서 일 남면(南面)을 보면 광배(光背)의 면석(面石)은 평평(平平)하며 광배(光背)부터는 심히 내곡(內曲)되었음을 곧 알 수 있다.

좌상(坐像)은 두상(頭像)의 파손(破損)이 동면(東面)보다 더 심하다. 그러나 두부(頭部)의 윤곽을 볼 때 여래상(如來像)임이 틀림 없는 것 같고 상호(相好)는 원만(圓滿)하다. 양쪽 귀는 길어서 양쪽 어깨까지 다았으며 목에는 삼도(三道)가 완연하다.

법의(法衣)는 통견(通肩)으로 양쪽 팔에 걸친 의문(衣紋)은 밑으로 흘렀으며 가슴에서는 원호(圓弧)를 그리고 있다.

수인(手印)은 양쪽 손을 가슴에 올려 내장(內掌)하였는데 오지(五指)가 마손(磨損)되어 정확한 결인(結印)을 알 수가 없다.

서면(西面)의 좌상(坐像)은(圖 7, 8 참조) 우선 광배(光背)부터가 동서면(東西面)과 전혀 다른 형태이다. 이중(二重)으로 된 원형(圓形)의 두(頭)신광(身光)의 내면(內面)이나 주연(周緣)에 아무런 조식(彫飾)도 없다. 다만 신석(身石)의 면(面)보다 외광(外光)이 약간두드러졌고, 외광(外光)보다 내광(內光)이 또한 두드러진 것 뿐이며 여기에 좌상(坐像)을 조각(彫刻)하였으므로 릴리프가 강할 수 없고 따라서 앞의 동(東)서면(西面)의 좌상(坐像)만치 입체감(立體感)이 나지 않는다.



圖 9. 북면(北面)의 여래좌상(如來坐像)



圖 10. 북면여래좌상(北面如來坐像)의 실측도(實測圖)(경주고적발굴조사단(慶州古蹟發掘調査團) 박문제(朴文濟) 실측제도(實測製圖))

좌상(坐像)은 고조(高彫)가 아닌 탓인지 약간의 마손(磨損)부분이 있을뿐 크게 파손(破損)되지는 않았다.

소발(素髮)의 두정(頭頂)에 큼직한 육계(內계)가 있고, 상호(相好)는 원만(圓滿)하며 양안(兩眼)과 비부(鼻部), 구순(口脣) 등이 정제(整齊)되어 있다. 그리고 양쪽 귀가 어깨에 닿을 정도로 길게 느려져서 위엄이 보인다.

법의(法衣)는 우견편단(右肩偏袒)으로 제전(臍前)에 이르면서 원호(圓弧)를 그리고 있으며 좌완(左腕)에 걸친 의문(衣紋)은 무릎을 덮고 있다.

수인(手印)은 우수(右手)를 무릎에 내리고 있으며 좌수(左手)가 제하(臍下)쪽으로 향(向)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항마인(降魔印)을 결(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좌상(坐像)은 일견(一見)하여 여래상(如來像)임을 알겠는바 특히 수인(手印)으로 보아서방정토(西方淨土)의 아미타(阿彌陀)가 아닌가 생각된다. 역시 하단부(下端部)의 매몰(埋沒)로 완전한 형태를 살필 수 없음이 유감이다.

북(北)쪽 면(面)의 좌상(坐像)을 살펴 보면(도(圖) 9, 10 참조) 그리 큰 파손(破損)은 없으나 전체적으로 마멸(磨滅)이 심한 편이어서 각부(各部)의 조각(彫刻)이 희미하다.

이중(二重)으로 된 원형(圓形)의 두(頭)신광(身光)이며 내면(內面)이나 주연(周緣)에는 아무런 조식(彫飾)이 없는데 이것은 서면(西面) 좌상(坐像)의 광배(光背)와 같다. 전면(全面)에 마손(磨損)이 심한 탓도 있겠지만 본래 고조(高彫)가 아니어서 다른 면(面)에 비(比)해 볼때 다소(多少) 평판적(平板的)인 감(感)을 느끼게 한다.

좌상(坐像)은 소발(素髮)의 두정(頭頂)에 큼직한 육계(內계)가 있으므로 여래상(如來像)임을 곧 알 수 있다. 상호(相好)는 원만(圓滿)하며 양미안(兩眉眼)과 비부(鼻部), 구순(口脣) 등이 정제(整齊)되었고 양쪽 귀는 길게 느려져서 목에 돌려진 삼도(三道)와 잘 어울려 위엄이 있어 보인다.

법의(法衣)는 통견(通肩)인 것 같으나 마손(磨損)으로 확연치 않고 제부(臍部)에 원호(圓弧)의 의문(衣紋)이 보이며 양쪽 무릎과 양 팔에 걸쳐진 의문(衣紋)은 뚜렷하다.

수인(手印)은 양쪽 팔을 안쪽으로 굽고 있으며 좌수(左手)에는 지물(持物)이 있는것 같으나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다음으로 살필 것은 옥개(屋蓋) 낙수면(落水面)에 조각(彫刻)되 복판연화문(伏瓣蓮華紋) 인데 사우(四隅)에 각일판(各一瓣)씩 배치하고 각면(各面)에도 일판(一瓣)씩 조식(彫飾)하였으므로 모두 팔엽(八葉)이다. 복엽(複葉)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특기할 것은 각우(各隅)의 연판(蓮瓣)은 전각부(轉角部)이기 때문에 그리 큰 판면(瓣面)이 아닐지나 각면(各面)의 연판(蓮瓣)은 그 넓직한 낙수면(落水面)에 일판(一瓣)씩만을 조각(彫刻)하였으므로 광대(廣大)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가지 주목(注目)할 것은 각면(各面)의 연판(蓮瓣) 형식(形式)이 다같은 양식(樣式)인데 북면(北面)의 일판(一瓣)만은 다른 점이다. 즉모두 설대(舌帶)를 중심하여 이중(二重)의 판단(瓣端)이 전개(展開)되었는데 북면(北面)만은 설대부분(舌帶部分)에 고사리문(紋)과도 같은 유려(流麗)한 문양(紋樣)을 조식(彫飾)하고 판단(瓣端)도 삼중(三重)으로 전개(展開)되어 있다. (圖 8, 10 참조)

III

이상 탑재(塔材)의 각부(各部)를 세밀하게 검토해 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석연치 않은 것은 이 석조물(石造物)의 원위치(原位置)와 방향(方向) 문제인데 현재의 자리가 원위치(原位置)는 아니라 하더라도 바로 옆에 지대석(地臺石)이로 추정(推定)되는 장대석(長大石)이 묻혀 있고 또 주변의 와편(瓦片) 등을 보아 이곳 일대가 폐사지(廢寺址)임이 확실한점 등으로 미루어 본래의 자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원위치(原位置)에서 크게 옮겨진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그 방향(方向)도 본래의 향(向)인지는 알 수 없으므로 현재(現在) 놓여진 대로 그 방향(方向)을 따라 각부분(各部分)을 살펴 본 것이다.

그러면 과연 이 석조물(石造物)이 무엇에 쓰여졌던 부재(部材)였는가 하는 것이 의문된다. 년대추정(年代推定)은 다시 시도(試圖)할 것이지만 일견(一見)하여 우선 신라시대(新羅時代) 조성(造成)의 석조물(石造物)인 것만은 틀림 없는 일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렇듯 평면(平面) 방형(方形)의 신석(身石)에 양우주(兩隅柱)가 있고 각면(各面)에 여래좌상(如來坐像)을 봉안한 것으로 보면 곧 일반형석탑(一般型石塔)의 초충탑신(初層塔身)(옥신(屋身))석(石)으로 보아 의심할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위를 덮고 있는 옥개(屋蓋)를 볼 때 라대(羅代)의 일반적(一般的)인 옥개석(屋蓋石)과 달른 점을 몇가지 지적할 수 있으니

첫째, 신석(身石)과 옥개석(屋蓋石)이 동일석(同一石)으로 조성(造成)되었다. 즉 라대(羅代)의 석탑재(石塔材)는 신(身)개(蓋)가 별석(別石)으로 조성(造成)되어 중적(重積)되는 것이 통례(通例)이며, 신(身)개석(蓋石)이 동일석(同一石)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고려시대(高麗時代)에 이르러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 하겠다.

둘째, 옥개(屋蓋) 하면(下面)에 충단형(層段形)의 받침이나 별(別)다른 조각(彫刻)없이 그저 평평(平平)할 뿐이다. 즉 라대(羅代)의 석탑(石塔) 옥개석(屋蓋石)에는 5단(段), 혹은 4단(段)의 각형(角形)받침이 있고 혹시 하대(下代)에 이르러 남원(南原)의 실상사(實相寺)백장암(百丈庵) 삼충석탑(三層石塔)에서와 같이 비천(飛天)이나 문양(紋樣)을 조식(彫飾)한 예(例)는 있다 하더라도 이렇듯 아무런 시설(施設)없이 평평(平平)한 옥개하면(屋蓋下面)의처리는 아직까지 조사(調査)된 바 없었던 것 같다.

셋째, 옥개(屋蓋) 낙수면(落水面)에 연화문(蓮華紋)이 조식(彫飾)된 점 또한 주목(注目)할 일이다. 즉 고려시대(高麗時代)에 이르게 되면 일반형석탑(一般型石塔)에 있어서 기단부(基壇部)를 받는 갑석(甲石)에 앙연(仰蓮) 혹은 복연(伏蓮)을 조각(彫刻)하여 좀 더 장식적(裝飾的)인 탑신(塔身) 받침 대(臺)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신라시대(新羅時代)에 있어서는 기단(基壇) 갑석(甲石)에 연화문(蓮華紋)을 조각(彫刻)한 예(例)가 아직까지 조사(調査)된 바 없으며 더욱이 탑신부(塔身部)의 옥개(屋蓋) 낙수면(落水面)에 연판(蓮瓣)을 조식(彫飾)한 예(例)는 없었던 것 같다.

이와같이 신라시대(新羅時代)에 있어서도 전혀 예외적(例外的)인 이형(異型)의 옥개석(屋蓋石)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 석물(石物)을 무엇이라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것은 옥개석(屋蓋石)만 가지고 논(論)할 것이 아니라 그 밑의 신석(身石)부터는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필자(筆者)는 상술(上述)했듯이 신석(身石)의 사방불(四方佛)은 라대(羅代)의 전형(典型)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반형석탑(一般型石塔)의 초충(初層) 탑신석(塔身石)과 같은바 있기 때문에 우선은 석탑(石塔)의 신석(身石)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여기에 특이(特異)한 형식(形式)의 옥개(屋蓋)를 생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思料)된다.

그리하여 이 석조물(石造物)은 석탑(石塔)의 부재(部材)이기는 하나 일반형석탑(一般型石塔)의 통식(通式)을 벗어난 특수(特殊)한 양식(樣式)의 석탑재(石塔材)를 보아야 할 것인바이러한 문제를 바꾸어 말하면 이 석물(石物)로 인(因)하여 특수양식(特殊樣式)의 석탑(石塔)의 일례(一例)를 추정(推定)할 수 있는 것으로도 말할 수 있겠다.

현재 한국석탑(韓國石塔)을 논(論)할때 불국사(佛國寺) 삼층석탑(三層石塔)과 같은 형식 (形式)을 신라전형양식(新羅典型樣式)의 대표작(代表作)이라 하고 이를 곧 일반형석탑(一般型石塔)의 규범(規範)으로 취(取)하고 있으며 이밖에 이 양식(樣式)에서 벗어나는 석탑(石塔)은 모두 특수양식(特殊樣式) 또는 이형탑(異型塔)으로 취급(取扱)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형식(形式)의 석탑(石塔)은 이형탑(異型塔)에서도 조사(調査)한 바 없다. 그러므로 필자(筆者)는 이 탑재(塔材)로 인(因)하여 라대(羅代) 특수양식(特殊樣式)의 석탑형식(石塔形式)에 또 하나의 특수양식(特殊樣式)을 추가하고자 하는바 그 것은 옥개석(屋蓋石)의 특수성(特殊性)을 지적하는 것이다.



圖 11. 현지(現地)에서 수집한 막새와편



圖 12. 현지(現地)에서 수집한 평와편

즉 신석(身石)과 옥개(屋蓋)가 동일석(同一石)으로 조성(造成)되고 충단형(層段形)의 옥 개(屋蓋)받침이 없으며 연화문(蓮華紋)이 조식(彫飾)된 낙수면(落水面)을 이루고 있는 특수 (特殊)한 양식(樣式)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고려시대(高麗時代)만의 형식(形式)으로 알고 있던 신(身)개(蓋) 동일석 (同一石) 조성(造成)은 신라시대(新羅時代)부터 나타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겠다. 그러나옥개(屋蓋)받침이 없고 특히 낙수면(落水面)에 연화문(蓮華紋)이 조식(彫飾)된 옥개석(屋蓋石)의 출현(出現)은 이 탑재(塔材)에서 처음이며 이와 같은 유형(類型)의 또하나의 계보(系譜)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잡을 가능이 있을 것이며 더욱 이 탑재(塔材)가 중요(重要)하게여겨지는 것이다.

이 탑재(塔材)의 조성연대(造成年代)에 있어서는 일견(一見)하여 라대작(羅代作)임을 알수 있다고 하였는데 좀더 세부(細部)를 검토해 보면 신석각면(身石各面)의 좌상(坐像)에 있어서 상호(相好)가 원만(圓滿)하고 양쪽 어깨와 가슴이 당당(堂堂)하여 곧 신라성대(新羅盛代)인 8세기(世紀) 중엽의 작풍(作風)을 느낄 수 있으며 내곡(內曲)된 광배(光背)와 화염문(火焰紋) 등의 양식수법(樣式手法)이 또한 그러하고 낙수면(落水面)의 연판(蓮瓣)에 있어서도 하대(下代)의 섬약(纖弱)에 흐르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그렇게 짐작된다. 그런데이곳 주변에 많은 와편(瓦片)이 흩어져 있는 중에 암막새와 평기와를 주울 수가 있었다. (도(圖) 11, 12 참조)이 암막새는 연속(連續)된 원좌내(圓座內)에 인동문(忍冬紋)을 장식한 문양와(紋樣瓦)로 곧 사천왕사지출토(四天王寺址出土) 암막새와 동일(同一)하며 평와(平瓦)는 선조(線條)사이에 세선(細線)으로 간(間)막음을 하고 희청색(灰靑色)에 와질(瓦質)도고운편이어서 통일전후(統一前後)한 때의 와편(瓦片)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와편(瓦片)들외(外)에 다른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이상으로 이곳 동천동(東川洞)의 사지(寺址)와 탑재(塔材)에 대하여 필자(筆者)의 소견 (所見)의 대략을 적어 보았는데 막상 필(筆)을 놓으려고 보니 미흡(未治)한 점이 너무나 많다. 양차(兩次) 조사시(調査時)마다 동절(冬節)이고 또 신석하단(身石下端) 매몰부(埋沒部)를 임의(任意)로 파 볼 수도 없고 하여 각면좌상(各面坐像)의 하부(下部)를 확인하지 못한점이 아쉽다. 앞으로 당국(當局)에서 본격적(本格的)인 조사(調査)를 실시하면 보다 확실하고 많은 자료(資料)가 수습되어 탑재(塔材)의 이해(理解)에 도움이 되겠으나 우선은 아직까지 조사(調査)되지 않았던 초유(初有)의 새자료(資料)로서 여기에 소개(紹介)한 것이다. 다만 필자(筆者)의 바라는바 많은 문제(問題) 제기에 대하여 앞으로의 해결(解決)은 이곳 일대의 본격적(本格的)인 조사(調査) 진행(進行)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당국(當局)에서의 보다 광범위하고 착실한 조사(調査)로서 의문을 풀어주고 아울러 이와같이 시내(市內)에 방치(放置)되는 유물(遺物)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끝으로 이곳 조사(調査)에 많은 도움을 준 여러 동학(同學)과 유물(遺物) 실측(實測), 제도(製圖) 등을 맡아준 경주고적발굴조사단(慶州古蹟發掘調査團)의 윤근일(尹根一), 배준학(裵俊學), 박문제(朴文齊) 제대(諸代)의 후의(厚意)에 감사(感謝)한다. (* 각부(各部)의 실측치(實測値)는 생략하므로 탑재(塔材)의 실측도면(實測圖面)을 참고해주기 바란다.)